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연재해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8월 19일 (토) 제 193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통일에 무관심한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평생 교회에서 남북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술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자랐다.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 이 겨레 살리는 통일”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곡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다.

인천에 사는 김 모 교사는 “한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개인 내면의 평화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 성경의 평화를 남북 관계와 연결해 설교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교회에서 남북한 통일이냐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며 전쟁 포로를 송환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된 한국의 일원이 되는 것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면서 통일은 허황된 꿈처럼 보인다.

CT의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통일을 지지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기독교인(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도 함)은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 역시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인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어 통합을 추구하거나 젊은이들에게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등 오랜 꿈을 향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정서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Z세대는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의 거의 절반(47.1%)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40대는 23.8%에 그쳤다.

CT가 국내 크리스천 채팅 그룹에 설문지를 보내 통일에 대한 Z세대의 생각을 물었을 때, 15세 서윤진 양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일이 되면 문화적으로는 좋겠지만 경제적,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끝내고 분단되면 두 나라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한의 완전한 분단이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서 씨뿐만이 아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북한은 ‘가난하고 전체주의 국가’인 반면 남한은 ‘부유하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잘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성서신학 교수인 신인철 교수는 통일을 지지하는 MZ 기독교인의 비율을 약 20~25%로 추정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비율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통일을 위한 교회의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는 지금 57살입니다. 한 때 교회는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네번재강 청년교육국 남상득 국장은 이전 세대의 한국인은 통일을 민족적, 경제적, 정신적 의미가 담긴 과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하와이 산발: 사망자 93명으로 늘어나...

BBC, 주지사 ‘사망자수 더 많이 늘어날 수도’

하와이 마우이섬의 유서 깊은 지역인 라하이아를 초토화한 이번 산발로 12일 기준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역사상 100년 만의 최악의 산발로 기록되게 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12일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범의 학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망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백 명은 불길을 피해 마우이 전역에 흩어진 대피소로 이동했으나, 행방이 묘연한 주민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린 주지사는 “믿기지 않는 날”이라면서 이번 화재가 “하와이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생존자들을 기다리고 지원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 헤어졌던 주민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이들에게 살 곳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터전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화재 경고를 미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이번 산발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 중이다.

질 토크다 하와이주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BBC 월드 서비스 ‘뉴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진정한 질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며 “우리 모두는 답을 원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토크다 의원은 지난주 라하이아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정말로 가슴 아팠다”고 언급했다.

(6면으로 계속)



발행인/편집장 김성국 목사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장경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열린문교회 설립 42주년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제 42주년을 맞이하여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목사 추대: 유재일 목사
담임목사 위임: 함성주 목사

일시 주후 2023년 8월 31일 (목) 오후 6시

장소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

8220 Briarwood Street, Anchorage AK 99518 Tel: 907-344-6446, www.kopcak.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열린문교회 교우일동

가미노회위임국장 천영일 목사

발행인 칼럼

수련회 단상 (斷想)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구름인가 안개인가. 넓은 호수를 감싸고 있는 산들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아무튼 집 없이 떠도는 그들이 애처로운 듯 잠시라도 편히 머물다 가라고 살포시 품어 주고 있었다.

“괴롭히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중에 ‘나를 붙드신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시간은 수련회 참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자기를 지금까지 붙잡아 준 말씀을 소개하고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 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수련회 찬양의 시간에 여러 찬양을 함께 불렀다.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제목은 “목적의 불명확했던 바울”이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였다. 바울은 많은 상처가 있었으나 상처를 크게 보지 않고 사명을 크게 보았다고 했다.

‘진보’ 기독교는 내가 떠났던 복음주의보다 더 알팍하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다(요 6:67).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이다. 나는 두 가지 신발을 신고 걸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신발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신발.

내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가 자라고 배운 기독교 전통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는 우리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소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성경의 권위를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했다. 문제는 단지 성경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특히 더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자란 텍사스 마을에서 더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서 동시에 이민자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사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피하거나 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처럼 성경, 정치, 그리고 고통에 관한 삼각형 질문은 내가 진보 기독교를 탐구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재건 없는 해체

나는 랍 벨이 쓴 'Velvet Elvis'와 '사랑이 이긴다'를 읽었다. 도널드 밀러의 '재즈처럼 하나님은'도 읽었다. 아직도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만이 아니라 정통 교리에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한 재즈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 라는 길 외에는 참된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 우리는 빛 속에서 신학을 한다. 그래야 어둠을 만났을 때 신학이라는 발판 위에 설 수 있다.

견한 성경 비평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고 복음주의 거품 속에서 자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손끝에 모든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 특정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모순과 비과학적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원수와 자녀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단지 어깨만 으쓱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을 영원한 고통으로 정죄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는 어떤가? 그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같은

레가 그토록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출산 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에 신경 쓰는 것만큼 마음을 쏟는 게 당연하겠지? 나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보다 이 세상의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 예수님 또는 교회와 아무 상관 없이 살고 싶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나와 소원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던 즈음이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한 복음주의 환경에서는 고난에 대한 실질적인 신학이 빠져 있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의 한 단락을 기억한다. 마이클 경거의 팬으로서 나는 그가 새로 시작한 팟캐스트 The Liturgists를 듣기 시작했다.

내가 새롭게 만난 광경은 감동적이었다. 성경 때문에 굳이 과학을 버리지 않아도 되었다! 기도가 동전 던지거처럼 느껴졌을 때,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믿음은 소외된 집단까지 돌보도록 정치에까지 영감을 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거와 “Science Mike” 맥하그(McHargue)의 해체 이야기에 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마침내 믿음을 해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설교집 신청 LA 동부장교회
담당: 유명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강해 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기라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가름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뭇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이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37권 견경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감정의 영감
제20권 인간의 복된 시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오웬의 머리말] (2)

4. 예배에 사용되는 형식화된 기도 문들에 포함된 여러서는 요소들(1)

1) 기도는 문에 예배를 미신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교회에 의해 처음 예배에 받아들여진 기도문들은 시대를 거둬들이면서 미신적이고 타락한 이교도적이고 교리들이 더해졌다. 모든 개혁교회는 그런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교리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인식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최초로 받아들여진 내용에 인위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그것들은 점점 교회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토록 가증스런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나 미사의 희생(the sacrifice of mass)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여러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신적으로 교활하며 사변적인 사람들의 논쟁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염시켰으며, 마침내 온 세계의 가시적인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상 숭배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가증스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된 형식적인 기도문들은 그들의 미신적이고 무지한 마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문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서는 완고함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교리적으로 화체설이나 미사에 믿을 만한 근거나 이유를 보지 못했고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 일리들, 즉 믿음과 이성과 감각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현혹되어 받아들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자신의 이성이나 믿음, 감각을 사용하여 제대로 비판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것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와 마침내 자리를 잡았고, 이와 더불어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그들의 모든 영혼을 오염시켰다.

2) 형식적인 기도문을 통해 마음이 이상숭배에 마비되어 갔다

성찬에 관한 교리들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서서히 부패되어, 그것들이 가진 진리나 오류를 객관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기도문들의 사용과 더불어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과 이성, 감각을 마비시켜,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약을 먹은 것과 같았다. 이상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들, 곧 화체설과 미사의 희생은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통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숭배에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영혼이 환상과 상상에 의해 사로잡히고 외적인 의식에 의해 동요되면, 항상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마비되고 결국 이상숭배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이상숭배와 같은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일반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를 흘린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주었던 자유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피를 마신 이 마시리는 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그 가장한 모습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3) 형식적인 기도문은 예배에 대해 인간적인 방법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질서에 의해 진리가 변질되는 곳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기도문의 형식을 빌려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몇몇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다양한 예배 의식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오류가 포함된 신앙의 교리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의 방법에 관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경멸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마차에 실은 법계가 흔들릴 것 같으니 손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웃사와 동일하다. 화체설과 희생의 미사와 이와 더불어 행해지는 모든 가증스러운 예배는 바로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예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세상은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에 대해 저항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게 되었다.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어 강요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좀 더 일찍 드러났다면, 수많은 악이 예방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떤 예배 의식도 만들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미사와 예배에서 그 어떤 성상(image)들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4) 인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형식적인 기도문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악은,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의식들에 얽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신교들에 의해 고백되었듯이 예배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증가시켜 결국 예배를 이상숭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은 계시나 자연스러운 예배의 정황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의식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의식들과 자연적인 빛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규칙들은 불필요한 걸치레들에 의해 대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점점 외적인 자세와 몸짓, 의복과 음악, 절하는 것과 굽실거리는 것, 십자가를 굿는 것과 분향, 재단, 향상, 십자가 등과 같은 수많은 의식들이 들어와 예배를 어렵고 미신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온갖 종류의 걸치레들을 행하는 것이 미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좋은나무성품학교는 2015년부터 창조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숲성품창조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허받은 12가지 주제성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숲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영성을 키우는 창조론적 숲생태교육과정입니다. 그중 딱따구리의 생태적 특징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은 사람도 뾰족한 것으로 나무에 구멍을 내려고 하면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나무에 찔러 달라붙어서 마치 숙련공처럼 작은 부리로 나무 동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 초당 무려 20번의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충격량은 더 놀랍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이 상대와 몸을 부딪칠 때 가해지는 충격이 80g이라면,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때릴 때의 충격은 무려 15배나 센 1,20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딱따구리는 이렇게 큰 충격에도 뇌진탕에 걸리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밀은 딱따구리의 두개골 구조와 독특한 허뼈에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다른 새들에게는 없는 특이한 충격 흡수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화학적 구성과 밀도가 다른 조류와 달라서 두개골이 더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충격을 잘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딱따구리의 허에는 독특한 뼈가 있어 용수철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엄청난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딱따구리에게 앵무새처럼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달아주면 어떻까요? 또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딱따구리의 구조를 아예 바꿔놓는 것은 과연 존중받을 만한 시도입니까?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다른 사람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편견 없이 존중을 표현하도록 가르칩니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고정관념은 젠더 기반 폭력(GBV)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항하여 공개적으로 도전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性)이 평등한 게 뭐가 나빠요?", "편견 없이 대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늘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법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설명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남성과 여성을 폭격있게 대하는 의미의 '평등'이 아닙니다. 젠더 정체성이라 불리는 남성이면서 여성, 여성이면서 남성, 또는 교차적 성(alternate gender), 혼합적 성을 모두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평등'입니다.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CSE)의 초창점이나 다름없는 15~18세 이상 연령에는 더 노골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적대감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롭다', '차별 없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네스코가 세계적 추세인 포괄적 성교육(CSE)으로 강조하는 성평등 개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원하는 '젠더'와 사랑을 하기 위해 남성이면서 여성, 여성이면서 남성, 또는 교차적 성, 혼합적 성으로 자기 신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 삶에 글로벌하게 장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존중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창조 질서에 위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성책임은 "나뭇잎을 책임감 있게 보존하는 것으로,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성(性)을 건강하게 가꾸며 성장시키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남자, 여자, 제3의 성, 무한대까지 성의 종류를 늘려가며 모든 형태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과 존중이 아닙니다. 나를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나의 성(性)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나뭇잎을 보존하는 것이 성책임입니다. 나의 성(性)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해야 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pastors.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0. 아버지의 정의

가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버지의 권위(父權)회복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도, 배우지도 못했음입니다. 아버지의 남성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아는 것이 아버지됨의 첫 걸음입니다.

1. 아버지는 가정의 삼위일체이다. 성적으로 남자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며,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가정의 삼위일체입니다.

2. 아버지는 축복의 위임자이다. 아버지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민 6:22-27).

3. 아버지는 거울이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비춰주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형성해 갑니다.

4. 아버지는 가정예배의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5.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이다. 유대인이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어머니 교육인 줄 알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회당에 데리고 가는 것은 아버지 몫입니다. 그들의 IQ교육은 아버지, EQ교육은 어머니 몫입니다.

6.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Headship), 대표자(Leader)로 세움 받았습니니다. 이는 특권, 권위, 권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함을 말합니다.

7. 아버지는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이다. 가정의 분위기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가정이 화목한 천국

이 되기도 하고, 폭력과 투쟁의 전쟁터,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8.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다.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눈을 떠 보면 안 개실 때가 많다. 투명인간과 같습니다.

9. 아버지는 먹칠한 유리 같다. 아버지는 유리같이 잘 깨지기 하지만, 먹칠한 유리 같아서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0. 아버지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두려움이 없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11.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시골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고, 늘 쉽고 안식처와 같은 분입니다.

12. 아버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13. 아버지는 가시고기와 같다.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큰 물고기입니다. 암컷의 산란을 위해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다 죽으면, 어린 새끼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뜯어먹고, 양상한 가시만 남습니다.

14. 아버지는 자녀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은 구조적 결손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5. 아버지는 자녀들의 백과사전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끝

없는 질문에 가능하면 많은 답을 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16.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 인도, 풍요, 안식케 할 의무가 있습니다(시 23편).

17. 아버지는 가정의 지휘자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노인들에 효행하므로 가정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 가는 지휘자입니다.

18. 아버지는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입니다.

19. 아버지는 인생전장의 사령관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인생전장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령관입니다.

20. 아버지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친근한 존재이다. 아버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부드럽고 친근한 존재입니다.

21.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이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라는 네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22.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이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입니다.

23. 아버지의 사상은 바로 '토라'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이다. 아버지의 사상, 즉 생각, 사고, 이념, 주의 등의 정신적 바탕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베드로 진서 5

설교 만들기2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설교를 만드는 기쁨을 누가 알죠? 나는 은근히 자랑한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기쁨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설교 준비할 때와 설교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한다. 설교 준비하는 그 자체는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준비의 시간에 흥분을 느낀다. 스펠전 목사님의 아내 내 남편은 설교 준비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했다지만 나는 불에 타 죽을 만한 그런 열정까지는 되지 못한다 해도 내게도 그런 기쁨은 언제나 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설교를 만든다. 언제 이 설교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드실 때는 이것이 아까워 꼭 어느 곳에서 설교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산고를 겪으면서 만든 설교를 은퇴 후에 버릴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럼 책으로 내

시지. 예전 착각한 것이 몇 개 있다. 은퇴하면 숲속의 작은 집에서 글이나 쓰며 지내겠다 했지만 은퇴하면 외로워서 오히려 도시에 나와 살아야 하고 글을 쓰겠다고 한 것도 착각이다. 현대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집을 읽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눈이 아프게 책을 읽을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경도 안 읽는데.

revpeterk@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동

▲ 종족명 비 종족

▲ 인구 약 35,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슬람 99.9%, 알려진 신자 없음

▲ 기타

학교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 문맹률이 높음

▲ 프로젝트 소개

2007년 시작된 이후 시편 23편, 신약 성경의 동방 박사과 목자, 탕자, 부자와 나사로 등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일부를 공용어로 번역했고 비 종족어로 번역과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18년부터 요한복음 공용어 번역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공용어와 비 종족어로 사복음서를 완성한 후

종족어로 녹음할 계획이다.

▲ 기도제목

1. 번역 조력자를 만나서 공용어로 번역된 복음서가 종족어로 녹음되도록

2. 비 종족에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생기도록

3. 이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비즈니스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제2회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명단 : Lauren Ahn, Eunsung Choo, Samuel Kim, Sungmin Kim, Johnson Lee, Ryley Park, Chong Lim, David Shin, Joshua Suh

일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4시

장소: Jesus' Hands Montessori School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행사문의: 장학위원장 안신기목사 (909)677-0028

주최: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

주관: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

제24회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Annual Conference

할렐루야

미국, 캐나다와 남미의 개신교 교회 중심의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 24회 총회를 샬럿에서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이 모든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후 4:15)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6시부터
30일(수) 오전 11시까지

장 소: 샬럿 장로교회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704)877-6642(C) (704)529-0900(O)

대표회장: 장석민 목사(678)469-5303
준비위원장: 나성균 목사(704)877-6642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404)915-4717

www.ikcca.org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